
비전중심 경영이 효과적으로 뿌리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이제 자네 회사는 순발력으로 버티던 시점을 벗어나 시스템을 안착시켜야 하잖아. 이럴 때 공동의 목표를 비전으로 제시하면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지. 그러려면 스타트업의 무질서에서 벗어나도록 체질이 바뀌어야 해.

고심해서 생각한 비전을 제시하는 일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추동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된단다. 체질개선에 성공한 기업은 일련의 유사한 과정을 거쳤더라고. 각 단계마다 유의할 점을 알아볼까?

1단계에서는 위기감을 충분히 고조시켜야 해. 위기감을 공유해서 구성원들을 참여의 장으로 끌어내지 못하면 체질개선 노력은 출발부터 초점을 잃고 말아. 실제로 기업의 절반 정도가 이 단계에서 실패하더라. 왜냐고? 사람들에게 변화를 강요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과소평가하기 때문이지.

체질개선의 첫발을 잘 떼려면, 적어도 관리자층의 70%는 현상유지를 포기할 정도로 문제를 공론화하고 위기감을 조성해야 해.

2단계에서는 강력한 혁신주도 그룹을 창출해야지. 체질개선에 광신적이라 할 만큼 신념이 확고하고 열의에 찬 그룹 말이야. 강력한 추진세력이 결성되지 못하면, 오래 못 가서 변화를 거부하는 힘들이 겹속돼 개선을 중단시키고 말지.

3단계에서는 비전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해야 해. 비전은 복잡하면 안 돼. 비전을 5분 이내로 설명해 듣는 이들의 이해와